

Venture 즐겨찾기

IT839 추진의 핵심 지원기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992년 발족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및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연구기관이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벤처기업 지원정책들을 실행하는 주체로 다양한 출연사업과 용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 보통신연구진흥원의 사업은 크게 IT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중소기업의 신사업 창출 활성화를 위한 출연사업과 IT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한 IT용융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용자 지원하는 용자사업으로 나뉜다. 출연과용자를 통해 올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사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5~10년 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어나갈 IT839의 기반을 다지고, 원천기술과 함께 산업수요를 반영할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이다. 또, 부품무역수치 악화, IT산업의 양극화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관제관리전문가제도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Web기반의 연구개발 성과관리 지원체제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진흥원측은 설명했다. 또 IT전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통해 IT839 전략분야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산업경쟁력 강화사업 - IT839에 특화된 중소기업 중점 육성
정보통신진흥연구원은 IT산업의 신시장 창출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산업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한다. 지원분야 및 공모방법은 IT신성장동력과 관련된 34개 기술개발과제와 44개 기술개발 분야를 지정공모를 통해 사업예산의 70% 내외를 우선 지원할 것이고, 타분야에 대해서는 자유공모를 통해 유망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문기업간 협력과제를 우대하는 한편 성과물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기업에 귀속시킬 계획이다.

'기업 전문성 종합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연구개발역량이 우수한 전문 중소기업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사업화 성과를 제고해나갈 것이며, 과제당 최고 20억원씩 총 17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 3월말에는 지원과제를 확정하고, 4월에는 과제협약체결 및 1차 연구비(70%)를 지급할 계획이다.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 - 시제품 개발비 지원과제를 확대

총 90억원의 예산이 마련된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창업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개인 또는 설립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창의성 및 독창성 높은 기술을 발굴지원하며, 시제품 개발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한도를 종래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정부 출연금 비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였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우수 신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 신기술 지정 표시인 'IT마크'를 부여해 향후 사업화가능성을 높이고, 추가 연구개발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사업 및 용자사업 참여시 이를 우대할 방침이다. 지원과제의 확장과 연구비지급계획은 산업경쟁력 강화사업과 동일하다.

응용기술개발 지원사업 - 기술신보를 통한 기술담보대출 가능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은 위의 사업과 달리 사업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용자사업이다. IT분야 연구개발 투자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벤처업체의 기술개발에 총 1800억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을 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예산의 60%이상을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수요기업중심의 용자자금 상담과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고, 우수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밀착 홍보 추진을 통해 1800억원의 예산을 100%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개 주요은행의 전국 대출창구를 활용하여 전문가 상담·용자 접수·사업자 추천 등 수요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지원한도는 소요자금의 90%이내, 과제당 20억이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담보방식은 일반담보와 기술담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출기간은 조기상환과 2년거치 3년 상환할 수 있다. 기술개발 용자금리는 시중금리와 최소 2% 이상 금리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반담보대출은 전국 20개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술담보대출의 경우 전국 10개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 IT핵심 원천기술 개발

이 사업은 세계시장에서 선도할 기술을 마련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국가를 만들기 위한 IT핵심·원천기술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 총 2080억원이 마련된 이 사업은 이동통신, D-TV, 텔레매틱스 등 33개 대상과제에 대한 지정공모 방식으로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지원조건은 현금부담기준으로 대기업의 경우 자기부담금액의 30%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기부담금액의 10% 이상을 지원하고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등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연구개발관리규정에 의거한 연구목표의 부합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연구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등 기술개발계획을 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벤처119 (<http://www.venture119.or.kr>)

벤처119는 정보통신부 지원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벤처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이트로 기술지원, 교육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